

# 직업계고, 언제까지 온라인 실습만 할 건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원격교육 피드백·평가 한계  
신입생 줄고 취업률 하락  
학과 개편 등 재구조화 필요

코로나19 여파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온라인 실습이 장기화되면서 취업률 하락 등 직업계고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도 일반고처럼 격주제나 격일제로 등교하고 온라인 실습을 병행하다보니 학생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이 최근 '직업계고 전문교과 온라인 실습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직업계고 교

사 14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대체로 실습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틀어주는 방식으로 온라인 실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실습이라고 해도 주로 이론 내용을 설명하거나 공구·장비 사용법, 안전사항 등이 주를 이루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활용하는 경우는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업계고 교사들은 실습내용을 정확하게 학습하기 어렵고 학생의 집중력도 떨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한 직업계고 교사는 "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 실수 등을 교사가 직접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회로 설계 및 구성, 측정 등의 실습은 예상치 못한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원격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의 교육당국의 대처가 미흡하고 지원책 또한 한 발짝 뛴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광주 직업계고의 신입생 총원율은 2018년 91%에서 2019년 88%, 2020년 90%로 떨어졌다. 특히 2개교는 미달이 두드러져 전체 정원 2560명 정원 중 2312명이 입학해 248명을 채우지 못했다.

취업을 역시 2017년 60%대에서 2019년 50%대까지 떨어지면서 중학생들의 선호도가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장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실습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직능원 인재영 연구위원은 "직업계고에서는 전문교과의 실습을 필요로 하나 실습자원이 주로 학교에 집중돼 있다"며 "제대로 된 직업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화된 시설투자가 이뤄지거나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학교개편 등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주 지역 일부 직업계고가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가 하면 4개 학교가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선정(스마트팩토리과, 바이오메디컬과, 영상미디어과, 스마트재산경영과)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 기초인재를 키우기 위한 학교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재학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직업계고는 이미 산업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입생 총원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취업률도 하락하는 등 위기상황"이라며 "스마트팩토리, 바이오산업 등 첨단 산업분야와 영상미디어, 지적재산권 분야의 학과 개편을 통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고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전남대, 세계대학평가서 연구역량 '우수'

네덜란드 '라이덴 랭킹'  
국내 11위, 세계 368위

전남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평가에서 연구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전남대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Leiden University)이 최근 발표한 '2020년 라이덴 랭킹'에서 최근 4년간 발표된 전체 논문 수를 기준 국내 11위, 세계 368위를 차지했다.

전남대는 이 기간동안 전체 7462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피인용 상위 10%에 해당하는 논문이 521편으로 약 7%의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논문의 질과 양 등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라이덴랭킹'은 최근 4년간(2015-2018년) 국제 논문을 1000편 이상 발표한 세계 65개국·1176개 대학을 분석해 전체 발표 논문수, 피인용 우수 논문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해 평가하고 있다

며, 평판도 등 다른 요소가 포함되지 않아 각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전남대는 이보다 앞서 발표된 사우디아라비아 세계대학평가센터의 '2020-2021 CWUR 세계대학 랭킹'에서도 국내대학 11위, 세계대학 440위를 차지했다. CWUR 세계대학평가 랭킹은 전 세계 1만 8000여 개 대학 가운데 상위 2000개 대학의 순위를 공개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는 교육수준·동문취업·교수수준·논문실적·우수논문·논문영향력·논문인용도 등 7개 지표로 평가한다. 전남대는 이 가운데 40%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성과 영역에서 세계대학 가운데 410위를 차지했다.

정병석 전남대 총장은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한 구성원들의 열정과 철저한 연구자 중심의 지원시스템이 어우러지면서 꾸준한 연구역량을 쌓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교육청 민·관 협력

양성평등교육위원회 구성

전남교육청이 민·관 협력의 양성평등교육 거버넌스인 '양성평등교육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성평등교육위원회 출범 시기는 2021년 1월을 목표로 한다.

올 하반기 중 양성평등교육 거버넌스 기획 회의를 거쳐 위원회 구성과 기능, 역할을 정하고 조례 제정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해 각종 연수와 전문가 초빙 강의를 한다.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을 초빙해 과정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권력, 위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의를 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5·18과 홍콩 우산혁명의 만남 홍콩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왕과 5·18 유공자의 어머니인 김길자씨가 22일 오후 광주 북구 신안동 자택에서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이날 영상통화는 지난 7월 조슈아 왕 측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김씨 아들 문제해결 열사의 요소 등에 회화하면서 이뤄졌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조선대 2학기 수업 대면·비대면 수업 병행

대면 수업은 수강 인원 제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조선대학교는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합(Blended)해 진행한다.

22일 조선대학교는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블렌디드(대면+비대면) 방식을 혼합하는 강의 진행을 골자로 한 올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실습·실습·실기 과목은 대면수업으로 진행한다. 단 강좌당 수강인원은 30명 이내로 제한되며, 수강생 동의 아래 집중이 수가 가능하다.

교양필수 과목 중 '대학영어', '생활영어' 등 영어회화수업, '사고와표현2(보고

서 작성 및 발표)', '신입생세미나' 등 대면수업으로 진행된다. 대학영어, 사고와표현2는 수강인원이 50명 이하로 제한되며, 생활영어는 20명 이하, 신입생세미나는 15~30명 이내로 수강한다.

전공필수 과목은 담당 교원이 대면 또는 블렌디드 수업으로 선택해 진행하며, 강좌당 수강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한다.

전공선택, 교양과목(교양선택, 대학영어 등을 제외한 교양필수), 교직과목 등은 비대면 또는 블렌디드 수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역시 담당 교원이 둘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블렌디드 방식의 수업은 강좌당 수강인원이 50명 이하로 제한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건보공단 호남제주본부, 비대면 걷기프로그램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열려있는 노인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건보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는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개인적으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본부는 광주시와 함께 8월~10월까지 '건강을 위해, 그래도 우리는 걷는다'라는 주제로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해 혼자 걸거나 우물증 자가진단과 소규모 원예치료 등 정신건강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지역본부는 지금까지 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백세운동교실'을 비롯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모든 사업을 중단한 상황이라서 이번 노인 걷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한편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광주시 지역주민의 걷기 실천율은 43.7%로 지난해 47.6%에 비해 3.9%포인트나 감소한 반면, 우울감 경험률은 5.4%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9%p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무등록 입시컨설팅학원 교습비 횡포 학부모 울린다

교육 시민단체가 일부 진학 상담·지도 학원(입시컨설팅학원)이 무등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일부 입시컨설팅학원을 모니터링한 결과, 북구에 소재한 A학원 등 4개 학원이 학원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4개 학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온라인방식을 통해 자기평가서와 감상문 작성,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등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으나 무등록 운영을 하다 보니 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들 학원은 상담·지도뿐만 아니라 교과 교습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감독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고 교습비 기준도

지키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측은 "광주의 경우 진학 상담·지도 교습에 대한 교습비 기준이 없어 '입시컨설팅학원에서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다"며 "경기, 울산, 제주, 인천, 경남, 경북교육청은 입시컨설팅학원의 교습비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벌없는 사회는 진학상담·

지도 교습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등록된 입시컨설팅학원은 입시 보습학원에 준해서 교습비를 받게 돼 있어 터무니없게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무등록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방치된 묘지 70%(추정)**

☎ 062-412-2800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광주에서 30~40분 소요**

##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묘지이장 문의**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